

“비바! 칠레” 매몰광부 기적의 생환에 세계가 감동

‘불사조’도 긴장한 구조 과정...모두가 한마음

“나온다, 나온다” 13일 오전 0시11분(현지시간)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광부 플로렌시오 아발로스를 실은 캡슐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광부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광산 앞 ‘희망광탑’에서는 일제히 탄성과 박수가 쏟아져나왔다.

광산을 찌렁 찌렁 울린 “비바! 칠레”의 함성으로 영상 3~4도의 차가운 사막의 밤은 단순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지난 8월5일 밤 발생한 붕괴사고로 지하 700m 깊도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한 명이 69일 만에 지상을 밟는 순간이었다. 구조 개시부터 시작해 1시간이 채 안 걸린 첫 구조의 과정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과정이었다.

당초 12일 오후 8시께로 잡혀있던 구조 개시 시점이 두 시간 후인 10시로 한 차례 늦춰지고, 10시를 넘기도록 구조 대원을 실은 캡슐 ‘불사조’가 내려가지 않자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긴장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모두가 고대하던 구조작업은 11시 20분께 시작했다.

첫 구조대원인 마누엘 곤살레스가

캡슐을 타고 천천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16분 후 지하 광부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 통해 캡슐이 안전하게 착륙하는 장면이 잡혔다.

캡슐에서 내린 마누엘 곤살레스가 지하 광부들과 포옹하는 장면을 지켜본 가족, 친지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그치지 못했다.

이후 11시55분 드디어 플로렌시오를 실은 캡슐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아올랐다.

캡슐이 출발한 지 16분 후, 첫 구조대원을 실은 캡슐이 내려가며 구조개시를 알린 시점으로부터는 50분여 만에 캡슐은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화면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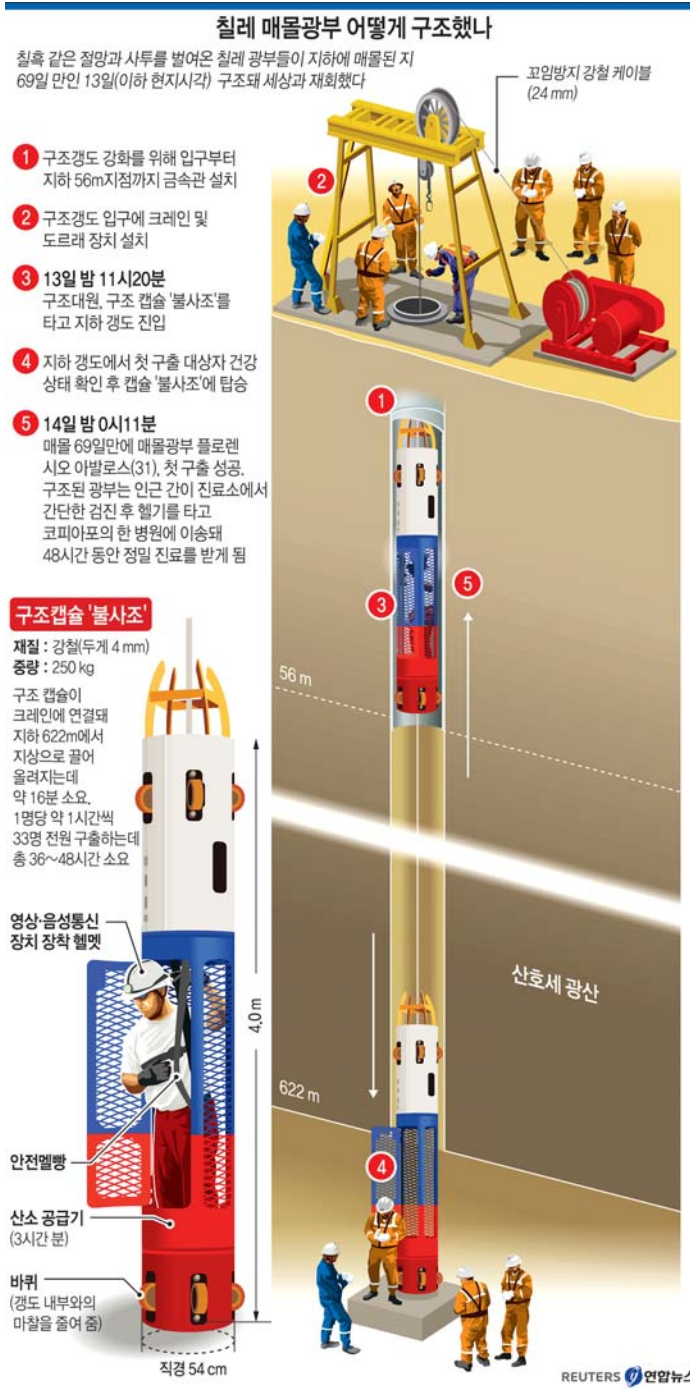
가족, 친지들은 기쁨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플로렌시오가 캡슐 밖을 나와 기다리던 가족들, 피네라 대통령과 포옹을 나누는 순간마다 박수를 쳤다. 환희의 탄성은 광산 밖에서도 울려퍼졌다.

칠레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구조 화면을 지켜본 시민들도 일제히 환호하며 한마음으로 기쁨을 내뿜었다.

칠레 전역 교회에서는 광부가 구조된 순간 일제히 종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거리의 차들도 경쾌한 경적을 울리며 생환을 환영했다. /연합뉴스



“제발...” 12일(현지시간) 칠레 코피아포 인근의 산호세 광산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을 구출하는 작업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대형TV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소년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 700m, 캡슐로 1명씩...36~48시간 소요

구조작업 어떻게 진행되나

지하 700m 깊도에 갇혀있던 칠레 광부들이 차례로 구출되면서 69일간 이어진 구조작업이 가장 험난하고 중요한 관문을 지나고 있다.

지하에 매몰된 광부들은 구조 순서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지하에서 내려온 의료진에게 구출작업과 관련된 각종 안전수칙과 작업절차를 전달받는다.

이들은 차례로 한 명씩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캡슐 속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어지럼증과 혈압 강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팔과 다리 등 심장에서 먼 부분에 고무밴드를 착용하고 산소호흡기, 통신장비 등 각종 안전장비를 갖춘 뒤 한 명씩 캡슐에 탑승한다.

이 캡슐이 지상 가까이 도달하게 되면 지상에서는 불빛과 함께 사이렌이 1분 간 울리며 광부

들이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게 된다.

지상으로 올라온 광부들은 경도 입구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뒤 코피아포 시내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이틀간 정밀 건강 진단을 받는다. 광부들이 갇혀 있는 지점까지 캡슐이 내려가는데는 약 30분, 구조 캡슐을 통해 1명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는 1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33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에는 36~48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지하로 내려간 구조대원과 의료진을 포함, 광부들이 구조되는 동안 차례로 광산 전문가, 군 구조전문요원 등 5명의 구조요원이 지하로 내려가며, 마지막 광부를 캡슐에 태운 뒤 이들 구조요원까지 모두 지상으로 올라오면 69일간의 지체했던 구조작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

48시간마다 한번씩 쿠키 반 조각·우유 반 컵

암흑의 69일 어떻게 버텼나

지난 8월5일 발생한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붕괴사고로 13일(현지시간)까지 69일간 지하 700m에서 매몰돼 있던 광부 33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들이 버텨낸 그간의 암흑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존을 건 '다이어트' = 매몰된 지 17일 뒤 생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광부들은 작업반장인 루이스 우르주아(54)의 지도 아래 48시간마다 한번씩 스프 2개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우유 반 컵으로 버텨야 했다. 이들의 생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매물 지점까지 뚫린 지름 10cm 크기의 작은 통로를 통해 수프, 의약품 등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지상과의 화상통화 = 지난 8월22일 구조대원들이 생존자 확인을 위해 지하 깊이 박은 드릴을 두드려 생존 사실을 알린 광부들은 이후 작은 구멍을 통해 광선 유 전선을 내려받아 지상과 전화 통화는 물론 화상 통화도 하게 됐다.

◇아이팟·성경 제공 = 매몰된 광부들은 작은 프로젝터를 통해 칠레와 우크라이나 등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고 펠레, 마라도나 등 과거 인기 축구 선수들의 경기 동영상을 즐겼으며 지상의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위안을 얻었다.

최근에는 일간지를 받아보며 지상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제정한 최신행 아이팟, 성경책,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직접 보낸 묵주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PREMIUM BUFFET **아이엘리시아**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0,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1. 꿈꾸는 공주처럼 아름답다.
2. 피부가 보드럽고 매끄럽다.
3. 내 여자 같이 오래-오래
4.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5. 성 별의 심리가 예방된다.
6.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7. 원앙어선/해외파견/독신자생활시에

※ 사은품 80,000원 상당 증정 ※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 안향연 생로병사 불모장생 책을 드립니다.

02-2068-4142 010-6306-7070
02-2068-4143 010-3611-8272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